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영재에 대한 고찰

류 은 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김 정 은

산남초등학교

백 성 혜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발명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영재학생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또래 관계 맺기, 의사소통과 협동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스트레스 처리능력, 다중처리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재교육원, 가족, 학교로부터의 과도한 기대로 인해 자신의 영재성에 대한 의심, 자아 정체성의 혼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영재교육의 학업적 성취와 인지활동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영재들이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재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재교육에 학생들이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영재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사회-정서적 어려움, 과학영재, 발명영재, 자아존중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정서 능력(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은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사회인식, 대인관계 기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포함한다. 즉, 정서적 능력은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고, 사회적 능력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정서적 능력이 학업,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사회-정서 학습은 모든 학습자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영재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사회-정서 발달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일반학습자보다 일찍 그리고 강렬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영재는 인

교신저자: 백성혜(shpaik@knu.ac.kr)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B00554).

지적 특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정의적,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 영재는 남다른 정서적 깊이와 강렬함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과민성과 지나친 흥분성,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면에서의 비동시적 발달, 이상주의와 정의감 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영재의 내적 특성은 내적 비동시적 발달과 또래보다 빠른 발달로 모든 발달 단계나 연령에서 정서적·발달적 쟁점에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정서적 쟁점이 주위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면 영재는 심각한 사회-정서적 문제를 갖게 된다. 영재가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에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조화를 이룬 사회-정서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의 운영 방향은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영재 육성에 있다. 즉,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한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성을 겸비한 인재란 곧 사회-정서적 능력이 우수한 영재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지적, 인지적 측면의 영재성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영재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정서적 교육에 대해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중학교 2학년 과학·발명 영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학생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정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 과학·발명 영재학생들이 겪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교 2학년 과학·발명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재의 사회-정서적 능력의 중요성

렌줄리의 세 고리 개념(the t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에서 영재성의 세 고리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평균이상의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이 있다. 렌줄리는 영재성 세 고리를 하운드투스 무늬 패턴의 배경 위에 올려놓았는데 하운드투스 이론에서는 지적, 학문적 능력을 증가하는 성격 특성이자 개인에게 내재된 정서적 특성이면서 타인을 대하는 사회적 특성인 환경 관계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호인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상호인지적 특성을 지닌 학습자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적 자산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영재의 사회-정서적 능력이 영재성을 발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 것이다.

2. 영재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관점

영재들의 정의적·사회적 발달 특성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영재의 높은 인지적 특성에 맞게 그들의 정의적·사회적 특성도 건강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Griggs & Dunn (1984)에 의하면 영재 학생들은 높은 동기와 호기심 외에도 정의적으로 건전한 편임을 언급하였다. 김홍원 등(2003)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영재에 대한 연구에서 영재는 보통아이에 비해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영재교육을 받은 영재가 교육을 받지 못한 영재에 비해 정의적 특성 또한 높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Hollingworth (1942)는 영재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영재들은 ‘건전한 속임수’를 잘 하며, 이러한 속임수는 영재들의 높은 정신력과 도덕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과 범죄로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여홍(2000)은 영재가 또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쉽게 어울리거나 서로 공통의 대화 소재를 찾기 어려워 격리감과 소외감을 갖기 쉽고,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영재들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외부로의 도전력을 잘 기르지 못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3. 영재의 사회-정서적 어려움

영재들의 지적·인지적 특성에 관한 문제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영재의 정의적 특성과 이로 인해 영재들이 겪게 되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영재는 사회-정서적 적응에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학생들은 상당한 행동 및 부적응의 문제를 많이 갖는다고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조현철, 2010). 송의열(2002) 역시 낮은 자아 존중감은 영재성이 매우 높은 영재에게서 예상과는 달리 종종 나타나는데, 영재 스스로 ‘뭔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느낌 또는 ‘되기 바라는 것’과 내적 평가 사이의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기인되며 이러한 자신에 대한 비판은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Chan (2003)은 영재들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 자신의 재능이 잘 인정되는 것에 관련한 문제, 학교 공부에서 도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몰입한다고 느끼는 문제, 동료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문제, 완벽주의 행동에 빠지는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영재들은 학업 스트레스 요인, 인성적 스트레스 요인,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영재가 지니는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Moon, S. M., Kelly, K. R., & Feldhusen, J. F., 1997). 도전적이지 못한 정규수업, 교사의 영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영재는 미성취를 하게 되고 미성취는 영재성을 가리게 된다. 인성,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은 주로 교사와 또래 거절로 기인된다. 조숙한 언어 능력, 도전적이고 호기심 많은 사고와 질문은 많은 교사들을 당황하게 하며 때로는 불쾌감을 지니게 한다. 또한 영재들의 흥미나 능력이 동일 연령의 대다수 학생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또래 거절은

진정한 친구를 찾는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Geiger (1997)는 영재 집단의 학생들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은 몇 가지 성격 차원에서 보통 영재들에 비해 독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재들은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낮은 자아 존중감, 위협 감수에 소극적임, 고르지 않은 발달, 완벽주의, 내성적임, 예민한 민감성, 우울 경향성을 경험하고 소외시키게 되며, 영재들 역시 그들의 수줍음이나 내성적, 독특하고 색다른 흥미로 인해 고립이 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 영재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이 나타나는 영역

영재들은 다양한 내적 특성과 외부 요인으로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은 내적 비동시성, 또래보다 빠른 발달, 특수한 집단에 속한 영재의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 내적 비동시성이란 영재의 정의적(감정) 특성이 신체적, 지적인 발달과 함께 동시적으로 발달하지 못할 경우의 어려움을 말한다. 비동시적 발달은 영재의 인지, 사회, 정서 영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불균형적 발달로 특징 지워지는데 이로 인해 영재는 지적 능력의 성장이 사회-정서적 측면의 기능을 다루는 능력보다 더 빠르게 되어 발생하는 혼동과 좌절감을 갖게 된다(Kathleen M., 1994). 또한 영재는 또래보다 빠른 발달과 비동시적 발달, 주변 자구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성의 획득이나 유지의 어려움, 정서적 예민함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을 갖는다. 나이가 어린 영재, 고도 영재, 소외지역의 영재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그리고 여성영재, 학습장애를 가진 영재와 같은 특수집단에 속한 영재일수록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기 쉽게 된다.

나. 영재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요인

영재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요인은 내적 특성과 사회적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특성으로는 영재성이란 의미의 혼재, 부정확하거나 약한 자아개념(self-concept),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심리적 기대에서 비롯된 부담감, 학업 성취 미달, 건전하지 못한 완벽주의, 과흥분성, 극단적인 민감성, 높은 에너지, 취약한 스트레스 조절 능력, 낮은 자아존중감, 내향성, 강렬한 감정, 동기, 잠재력 발산 욕구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쟁점으로는 지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적대적인 학교문화 또는 또래 문화, 걸맞지 않은 교육환경, 집단 따돌림, 부모나 형제·자매 사이의 문제, 권위에 대한 불복종과 의문제기, 의미 있는 교우관계를 맺기 어려운 현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외적 기대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다.

다. 영재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극복 방안

영재의 사회-정서적 특징으로 인해 영재는 일반 또래 학생들보다 추가적으로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영재의 성격적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여홍(2000)은 영재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며, 이들의 학교 및 사회의 적응

을 도와주고 나아가 이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일은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영재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이 지적 성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 둘째, 영재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이 그들이 앞으로 잠재력을 실현해야 할 사회 적응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며 영재가 사회에 부적응함으로써 정서장애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자살과 같은 병리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재의 부적응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인재를 잃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조현철(2010)은 사회-정서적으로 더 취약하기 쉬운 영재들의 적응을 돕는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며 영재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한 여러 중요한 지표들-사회적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정도, 스트레스 정도 및 적응성 있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사용이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정서지능의 여러 요인들과 매우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우선 정서지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학업적 성취와 인지활동 위주의 치열한 경쟁에서의 승리만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영재교육 풍토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영재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고 영재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과 그러한 능력에서의 정상적인 발달을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상담과정의 개발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송의열(2002)은 영재 아동들이 또래 아동들보다 특별한 분야의 재능에서 훨씬 앞섬으로써 여러 곤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영재 아동이 그 스트레스 원천과 대처 방식을 이해하고 영재성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배려가 주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영재들의 사회 심리적 행동 이해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협력, 영재 아동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특별 활동과 더불어 주어지는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학교 교육과정, 여러 장면에서 더 많은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기회, 영재 아동들의 심리적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등은 영재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바른 사회 정서적 적응을 돕는데 기여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영재학생들은 1차 영재성검사, 2차 학업적성시험, 3차 면접을 거쳐 선발되어 3월부터 교육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아온 중학교 2학년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들이다. 과학영재반은 남학생 27명, 여학생 11명으로 전체 38명이 참여하였고 발명영재반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6명으로 전체 1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영재학생들이 응답한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과정별로 평균값을 계산하였고, 각 영재학생들의 합산 점수를 평균값과 비교하여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특별히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4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연구 대상인 영재학생들은 이러한 연구에 피험자로 선정된 경우가 전혀 없는 학생들로 진솔한 마음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었고, 심층면담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었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중학교 과학·발명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이예승, 2004)의 4점 리커르트 척도형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투입하였다.

둘째,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과정별 전체 학생들의 문항 평균값을 얻은 후 각 영재학생이 얻은 점수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문항의 합계 점수가 과정별 문항 평균값보다 낮은 학생 중심으로 선발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과정에서 학생의 응답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생각을 질문하고 내용을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2010년 5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4점 리커르트 척도형 설문지

영재학생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이예승, 2004)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학생의 자아 존중감 정도,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 가족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영재교육원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각 요소의 질문 문항을 추출하였다. 다음 <표 1>은 설문지의 항목별 문항을 추출한 것이다.

<표 1> 설문지 문항

설문지 항목	항목 별 문항의 성격	문항수	최고점	해 석
I. 자아 존중감을 묻는 항목	1. 자아 신뢰	12	36	문항별 점수 합산 결과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본다.
	2. 사교성			
	3. 능률성			
	4. 호감			
	5. 성격			
	6. 통찰력			
	7. 핵심파악능력			
	8. 좌절감*			
	9. 다중처리능력*			
	10. 스트레스처리능력*			
	11. 자신감 부족*			
	12. 자아 연민*			

II.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제 친화 2. 공정성 3. 수업 방해 학생 4. 교사 열의 5. 긍정적 피드백 6. 부정적 피드백* 7. 부적절한 피드백* 8. 교사 관심* 9. 교사의 학생 인정 10. 교사 지원 11. 교사 상담 	11	33	<p>문항별 점수 합산 결과가 높을수록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다.</p>
III. 가족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 존중 2. 가족 관심 3. 가족 인정 4. 가족 지원 5. 가족 도움 6. 가족 상담 	6	18	<p>문항별 점수 합산 결과가 높을수록 가족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다.</p>
IV.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무용론* 2. 과목 호감 3. 자퇴 욕구 4. 교사 존경 5. 학업 유용론 6. 성적 중시 7. 학업 능력* 8. 학습 태도 9. 자기주도학습 10. 규범 준수 11. 교우간 분쟁* 12. 교칙 준수* 13. 학교시설 파손* 14. 무단 이탈* 	14	42	<p>문항별 점수 합산 결과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다.</p>
V. 영재원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업성적 중시 2. 교사 편애 3. 시험스트레스 4. 열등감 5. 학습 집중력 6. 부적절한 학습 수준 7. 교사의 인격무시 8. 과제 부담 9. 진로 걱정 10. 친구 부족 11. 시간 부족 12. 경쟁의식 13. 과도한 사교육 	13	39	<p>문항별 점수 합산 결과가 높을수록 영재교육원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이다.</p>

나. 설문지 분석

자아 존중감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12개의 문항,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는 11개의 문항, 가족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는 6개의 문항,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는 14개의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각 문항 당 0~3점까지의 점수를 부여 점수 총합을 계산하였다.

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설문지 분석 결과 선발된 영재학생에게는 리커트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각자가 겪고 있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영재교육 수업 이후 30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기로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정도

가.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항목별 비교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알아보는 설문 결과 <표 2>와 같이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비슷하였다.

<표 2>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의 항목별 평균 비교

과정	문항 최고점	자아존중감	영재 교육원 분위기	가족분위기	학교생활	스트레스
과학영재	36	24.97	26.14	15.43	30.00	13.24
발명영재	36	25.69	26.00	15.94	29.06	15.44

영재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과학영재반 학생들이 발명영재반 학생들보다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항의 합계 점수가 과정별 문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특별히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4명 학생의 설문지 분석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과학영재반 학생1, 과학영재반 학생2의 설문지 분석결과

설문지 항목	문항 최고점	과학영재반 학생 평균	학생1 점수	학생2 점수
I. 자아 존중감 정도를 묻는 항목	36	24.97	13	17
II.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33	26.14	13	16
III. 가족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18	15.43	8	14
IV.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42	30.00	19	26
V. 영재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항목	39	13.24	18	16

과학영재반 학생1과 학생2는 자아 존중감을 묻는 항목에 대한 문항 점수 합산 결과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었으며 이는 학생이 자아 존중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 가족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었다. 이는 학생이 주위 환경에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재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도 평균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은 다소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발명영재반 학생3, 발명영재반 학생4의 설문지 분석 결과

설문지 항목	문항 최고점	발명영재반 학생 평균	학생3 점수	학생4 점수
I. 자아 존중감 정도를 묻는 항목	36	25.69	17	15
II.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33	26.00	17	23
III. 가족 분위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18	15.94	17	11
IV.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	42	29.06	25	16
V. 영재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항목	39	15.44	2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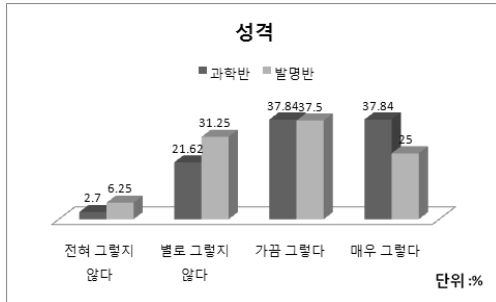
발명영재반 학생3과 학생4는 자아존중감을 묻는 항목에 대한 문항 점수 합산 결과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었으며 이는 학생이 자아 존중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재교육원의 분위기에 대한 생각,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었다. 학생 4는 가족 분위기에 대한 생각 항목에서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인다. 이는 학생이 주위 환경에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학생 모두 영재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평균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항목별 문항 분석

1) 자아 존중감 정도를 묻는 항목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의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자아신뢰도가 높고 자신의 능률성과, 통찰력, 문제해심 파악 능력, 사교성, 호감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자아 연민 정도가 낮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스트레스 처리능력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과학영재반 학생 37.83%, 발명영재반 학생 31.25%로서 자신의 스트레스 처리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것은 영재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다중처리능력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과학영재반 학생 35.13%, 발명영재반 학생 18.75%로서 자신의 다중처리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것은 과학영재반 학생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의 자신이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는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의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과학영재반 학생의 24.32%, 발명영재반 학생의 37.50%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학생이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재학생들이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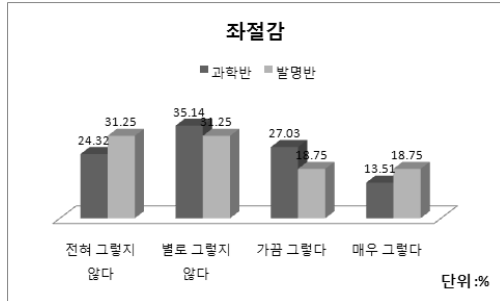
[그림 1]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 온화한 성격 정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재학생의 심층면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 사: 학교에서나 영재원에서 친구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 발명학생3: 제 취미가 애들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제가 맞지 않다보니까 애들은 다 연예인들 같은 거 좋아하는데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일반 생활에 대해서, 만화 같은 거 좋아하는데.
- 교 사: 일본 애니메이션?
- 발명학생3: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취미를 바꾸기에는 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지키면서 무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 교 사: 무리에 끼기가 어렵다. 언제부터 그랬어?
- 발명학생3: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 교 사: 초등학교 때에는 어떻게 친구들과 지냈지?
- 발명학생3: 일단 선생님이 그룹을 만들어주시면 그 무리에서 내 주장을 펼치게 되고 내 주장을 펼치게 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림 2]의 좌절감을 느낀 후의 포기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적으로 답한 과학영재반 학생 40.54%, 발명영재반 학생 37.50%가 좌절감을 느

길 경우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재학생이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좌절감을 느낀 후 포기 정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다음 발명학생3, 발명학생4의 심층 면담 자료에서 학생이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 사: 영재원에 오니까 어땠어? 더 공부하고 싶고 더 흥미를 갖게 되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마음이 생겼어?

발명학생3: 그런 마음이 약간 생기기도 했는데 없을 때도 많았어요.

교 사: 왜 그렇지?

발명학생3: 제 수준하고 안 맞아요. 여기 수준은 너무 높고 전 낮아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실 때 저는 1학년 발명반에서 수동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선 혼자서 못하겠어요. 다른 애들은 잘 하는데 저는 힘들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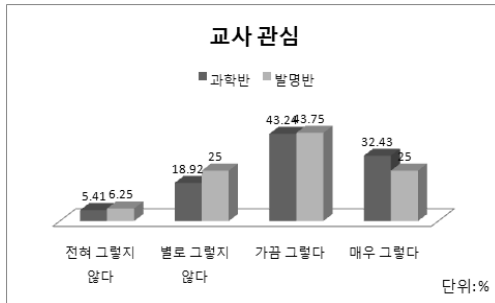
교 사: 그럼 지금 영재교육원 수업이나 생활이 힘들겠구나?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아?

발명학생4: 처음엔 발명 합격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성실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안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뒤처지게 되고 지금은 좀 힘들어요.

2) 영재교육원의 분위기를 묻는 항목

영재학생들은 영재교육원 교사의 학생 친화 정도, 공정성, 교사 열의, 학생 인정, 교사 지원, 긍정적 피드백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부정적 피드백과 부적절한 피드백 부분에서도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 모두 과반수 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으로 답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상담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과학영재반 학생 45.95%, 발명영재반 학생 43.75%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영재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의 교사 관심 문항을 통해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일부 학생은 교사 관심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 3] 교사 관심을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교 사: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얻은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발명학생3: 발명에 대한 기법 같은 거 그런 것은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필요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발명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불편해요. 특허를 내려 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3) 가족의 분위기를 묻는 항목

영재학생들이 가족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 정도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항목의 응답 분석을 보면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가족에게서 받는 지나친 기대와 간섭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환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영재교육원이나 학교 환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가족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과학학생1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지만 [그림 4]의 설문지 응답내용을 보면 가족에게서 긍정적인 지원과 공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다음은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족에게서 느끼는 감정정도에 'O'표 해주십시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나를 존중해 준다			✓	
2	가족은 나를 염려해 준다		✓		
3	가족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준다		✓		
4	가족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준다		✓		
5	가족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	
6	가족은 중요한 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		

[그림 4] 과학학생1의 설문지 응답 내용

교 사: 부모님과과의 관계는 어때? 어려움이 있어?

과학학생1: 별로 없어요. 좋아요.

다음은 발명학생4와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그림 5]의 설문지 응답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본인을 염려하고 필요한 정보와 충고 등 도움을 주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인정하거나 존중은 별로 해주지 않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발명학생4가 부모님의 높은 기대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Ⅲ. 다음은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족에게서 느끼는 감정정도에 'O'표 해주십시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나를 존중해 준다		✓		
2	가족은 나를 염려해 준다				✓
3	가족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준다		✓		
4	가족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준다				✓
5	가족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	
6	가족은 중요한 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		

[그림 5] 발명학생4의 설문지 응답 내용

교 사: 부모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시나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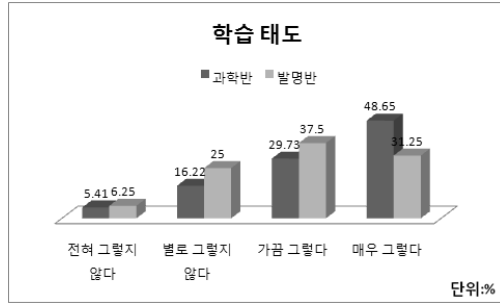
발명학생4: 언니보다는 기대를 안 하시지만, 기대하시죠. 언니는 과학고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학고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옛날에 바이올린을 하다가 언니 따라 과학 한다고 해서 그만 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바이올린을 계속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전공하기는 좀 그렇지만.

4) 학교생활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묻는 항목

문항 응답 분석 결과 영재학생들이 학교 성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교의 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파손, 무단이탈과 같은 비행 행동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학교 부적응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재 학생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이 필요하고 자신이 높은 학업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과목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과학영재반 학생 75.67%, 발명영재반 학생 62.50%가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발명영재반 학생의 경우 37.50%의 학생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교과목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퇴 욕구를 묻는 문항에서는 과학영재반 학생 70.27%, 발명영재반 학생 68.75%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자퇴욕구를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지만 과학영재반 학생 29.73%, 발명영재반 학생 31.25%는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자퇴욕구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무용론을 묻는 문항에서는 과학영재반 학생 32.43%, 발명영재반 37.50%가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학교 가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영재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교우간의 분쟁을 묻는 문항에서는 과학영재반 학생의 56.76%가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발명영재반 학생은 25.00%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영재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래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6]의 학습 태도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발명영재반 학생의 경우 31.25%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학습태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학영재반 학생의 21.63%보다 부정적 응답이 10% 가량 높았다. 이는 영재학생들이 수업에 몰두하고 도전감을 가질 수 있는 수업 수준과 내용이었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심층면담에서 발명학생3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수업 때문에 학습 태도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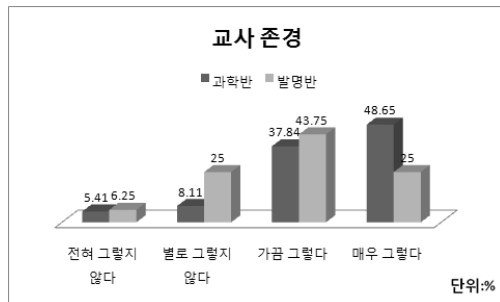
[그림 6] 학습 태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교 사: 학교에서 수업 시간 학습 태도는?

발명학생3: 잠이 많아서 존다거나 딴 생각이 들어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무의식적으로 제가 딴 생각에 빠지게 돼요. 장난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럴 때 재미가 없어서 딴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도중에 수업을 나가세요. 전 중요한 부분을 못 듣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수업시간에 애들한테 물어보긴 그렇고 수업을 방해하긴 그렇고 그대로 수업을 쪽 따라가긴 하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도 모른다고 해요.

[그림 7]에서 영재학생들은 대체로 학교 교사를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이 과학영재반 학생의 경우 13.52%인데 반해 발명영재반 학생의 경우 31.25%로 18%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영재학생들의 경우 학교 교사에 대한 존경이 학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심층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 7] 교사 존경을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교 사: 학교에서 공부는 어때? 어떤 어려움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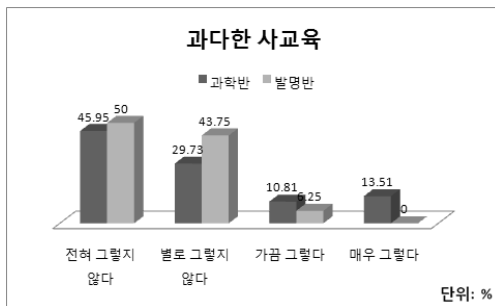
발명학생3: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만 끝내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그런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성적이 좋지 않아요.

5) 영재교육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문항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학업 성적, 영재원 시험, 영재원에서 학습 집중을 하지 못함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과제부담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과학영재반의 경우 학생 43.24%가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발명영재반의 경우 학생 6.25%만이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과학영재반의 경우 수업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림 8]에서 과학영재반 학생 75.68%, 발명영재반 학생 93.75%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거나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심층 면담에서 진학과 영재교육원 입학 준비를 위해 과도한 학과 선행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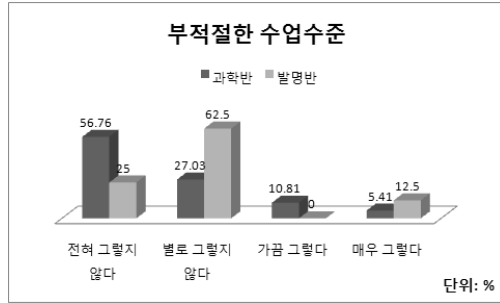


[그림 8] 과다한 사교육을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교 사: 어려운 공부를 했구나. 과학 공부를 미리 공부 할 때 재미도 있고 공부하고 싶은 동기도 생기니?

발명학생4: 과학고 갈려면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과고를 안 갈려고 하는데 계속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힘들어요. 아빠하고 언니하고 다 화확 쪽이라서, 첫째 날 수업은 다 이해했는데 그 다음부터 잠깐 명만 때리면 그날은 하루 종일 이해 못하겠어요.

[그림 9]의 부적절한 수업수준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역시 대부분의 학생이 없거나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심층 면담 결과 영재학생의 개별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수업 수준으로 영재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부적절한 수업수준을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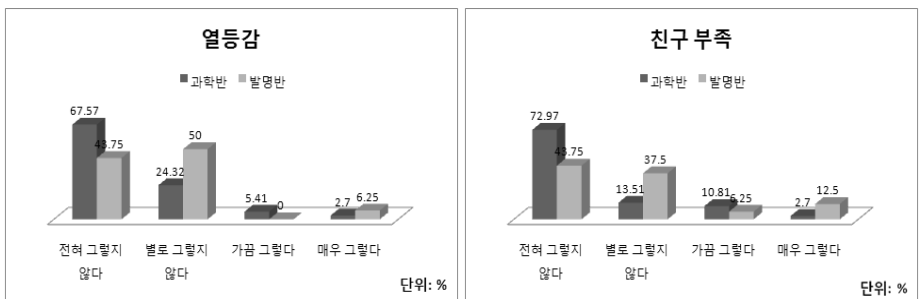
교 사: 영재교육원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 학교에서와 다른 점은 있어? 힘들거나 불만인 점은 무엇이 있을까?

과학학생1: 수업시간에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저번에 풀어 본 학생 다시 한 번 해볼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학교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 사: 영재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때?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친구관계 나?

과학학생2: 수업내용은 너무 개념위주로 수업을 하실 때는 제가 선수학습을 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선행을 한 아이들은 잘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림 10]에서 대체적으로 영재학생들은 영재교육원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학생들이 비슷한 관심과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므로 동질 의식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심층 면담 결과 일부의 영재학생은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거나 친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열등감, 친구부족을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교 사: 영재원에서 수업을 받다보면 공부하거나 친구들 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를 이야기 해주겠니?

과학학생1: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영재원에서 친구들끼리 학교 성적을 서로 이야기할 때에 제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아이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영재는 잠재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인데 내가 이 아이들과 같은 동급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 사: 영재학생들에게 영재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학생들마다 어려움이 있잖아. 적응,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진로.

과학학생2: 친구관계가 문제인거 같아요. 애들이 다들 지역이 다르잖아요. 저는 또 지역이 다른 쪽에서 와서 같이 실험하고 할 때 협동해서 결론을 얻어야 하는 게 많은데 서로 서먹서먹하고 힘든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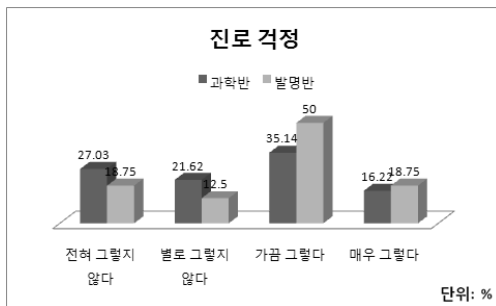
(중략)

교 사: 애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이나 강점 같은 것을 알면 좋겠네. 그렇지?

과학학생2: 그런 것을 미리 알면, 애들이 다 능력이 틀리잖아요. 누군 이걸 잘 하고 잘하는 쪽의 능력을 잘 알아서 서로 팀을 짜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하는 아이 가 도와 줄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림 11]에서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반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진로를 걱정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주위에서 받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영재학생이 진로 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영재교육원에서의 진로 지도가 필요함을 심층면담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1] 진로 걱정을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교 사: 영재원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과학학생1: 초등학교 때에 과학 영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실험하고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는 거 같아서 오게 되었죠.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음, 제가 국어도 좋아하고 요즈음에는 카피라이터 같은 직업에 끌리더라고요.

(중략)

교 사: 영재교육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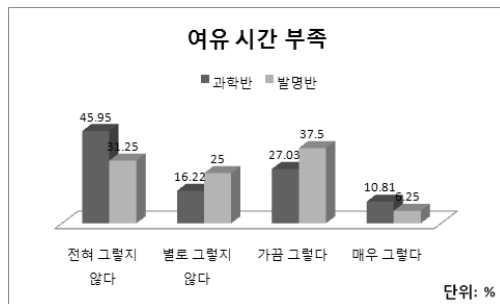
과학학생1: 과학 쪽의 진로가 제가 원하는 쪽은 아니어서 영재교육원 수업선생님은 저의 멘토가 될 수 없어요. 과학 선생님입니다.

과학학생2: 진로가 좀 바뀌어서 부모님과 특히 엄마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지금은 좀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전에 좀 그랬어요.

교 사: 어떤 이유에서지?

과학학생2: 저는 과학고가 목표였어요. 과학이 좋았고 과학자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과학고에 가서 과학자가 될 꺼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베르나르의 베르베르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과학이 줄 수 있는 것하고 다르게 책에서 얻는게 있는데 달라요. 책은 감동을 주고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문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깝다고 제가 비싼 과학학원도 다니고 했거든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림 12]의 여유시간 부족으로 겪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여유시간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지만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의 학생들이 여유시간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오늘날 영재학생들의 과다한 학습시간으로 인한 학습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고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2] 여유 시간 부족을 묻는 문항의 응답 분석

교 사: 탐구활동 보고서를 쓰고 있을 텐데 진척이 되고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발명학생3: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생활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움직이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잖아요. 제가 로봇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 사: 집에서 바쁘니?

발명학생3: 예

교 사: 그래서 공부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활용할 수 없어서 짜증이 난다고 했구나.

2.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해결 방안 모색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정도를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영재 학생이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영재교육원과 영 재교사들이 영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 방안을 심층면담 과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네 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서 겪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과학학생1은 영재교육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재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학생 개인의 성향이나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별 상담 후 학생들 에게 맞는 수업과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교 사: 영재 담임선생님이 줄 수 있는 도움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학학생1: 수업교사는 자기 수업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담임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명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리더십 수업도 있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라 도 아이들 각자의 성향을 알고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맞춤형 수업 같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획일화된 수업이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명학생3은 영재교육과정에 포함된 리더십 수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부족한 사회성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됨 을 이야기하였다.

교 사: 요즘 리더십수업 하잖아. 리더십 수업은 어때?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

발명학생3: 좋아요.

교 사: 어느 부분이 좋지?

발명학생3: 꿈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것이 좋아요. 자기 앞날을 엿나가지 않게 꼭 잡아주 고 관심분야에 대해 알려주니까 좋아요. 발명 수업에서도 이론이 있는데 그 이 론에 따라 아이들에게 실천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은 마인드맵 을 배웠는데 그 순간만 들어오지 내 마음 속에 깊이 남지 않아요. 그 순간 뿐이 예요. 하지만 리더십 수업은 달라요. 내 마음 속에 남아요.

과학학생2의 경우는 개별 상담과 면담 과정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에 대한 질문에 영재학생들 각자의 능력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은 영재학생들

의 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교 사: 개별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과학학생2: 제 생각엔 능력이 특별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따로 상담을 하거나 해서 그 애들한테 맞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상담이나, 면담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그 애들이 능력을 개발 할 거고 그러면 영재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게 하면 국가도 좋고 과학연구원도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발명학생4에게 영재교육원에서 진로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재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영재교사가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많은 상담 기회를 마련해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 사: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영재교육원 수업이나 생활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하도록 영재교육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발명학생4: 조금씩이라도... 상담을 하거나. 매일 한명씩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상담선생님이 아이 말을 잘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거나 서로 친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한 결과 영재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극복 방안은 영재교사 또는 상담교사의 상담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어려움과 재능은 영재수업교사가 수업시간에 파악할 수도 있지만 상담이라는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재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는 영재 리더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과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과학영재반과 발명영재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정서적 어려움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항목 별 분석 결과를 볼 때 몇 가지 주목되는 점과 영재교육 현장 및 연구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영재학생들의 어려움이 낮은 자아 존중감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온화한 성격과 교우간 분쟁 경험을 묻는 문항 응답은 영재학생들이 또래 관계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앞에서 영재학생들이 공부 문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 관계 등 집단 역동에 필요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적응이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박춘성, 이정규, 2008)와도 일치한다. 또한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하고 실패경험과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Geiger, R. W. D., 1997)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영재학생들은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로 위험감수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며 문제 상황을 피하려 하는 내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실패경험으로 쉽게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처리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영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재학생들이 진로 문제와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재학생의 과반수 이상 학생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특히 심층 면담을 통해서 특목고를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과학영재과정을 희망하거나 우회적으로 발명영재과정에 지원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영재교육에서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하는 것이다. 영재들은 주위환경으로 부터 과도한 기대와 관심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영재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며 이는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영재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의 극복 방안으로 영재상담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재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부족, 진로 고민, 정체성 혼란 등 일반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재학생들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해온 선행연구들의 결과(조현철, 2010; 송의열, 2002; 박춘성, 이정규, 2008)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 영재학생은 영재의 내적 특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Moon, S. M. et al., 199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재들은 더 예민하게 더 이른 시기에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재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며 영재교육현장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21세기 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에 적합한 과학·발명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 영재교육의 학업적 성취와 인지활동 위주의 영재교육에서 벗어나 영재들이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키워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재교육 과정에 사회-정서 학습(정의적 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며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영재학생들의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한 영재수업 교사들의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영재학생들의 인지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정서적 어려움은 개별적인 상담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영재학생들의 개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피드백이 영재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함을 심층면담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재상담 교사의 배치뿐만 아니라 영재수업교사의 영재학생 이해가 교육현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홍원 (2003). **초등 영재학생의 지적·정서적 행동 특성 및 지도 방안 연구**. (수탁연구보고서 CR2003-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춘성, 이정규 (2008). 영재아와 일반아간 학교 및 가정 부적응 유형차이-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영재교육학회지**, 7(2), 121-139.
- 송의열 (2002). 영재 아동의 사회 정서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이해. **한국영재교육학회지**, 1(2), 65-69.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19(1), 79-99.
- 이예승 (2004).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 탄력성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현철 (2010). 영재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스트레스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 관계. **한국영재교육학회지**, 9(1), 121-140.
- Chan, D. W. (2003). Assessing adjustment problems of gifted students in Hong Kong: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adjustment problems inventory. *Gifted Child Quarterly*, 47, 107-117.
- Geiger, R. W. D. (1997). Meeting the needs of the highly gifted: A parent's perspective. *Roeper Review*, 19(3), 4-6.
- Griggs, S. A., Dunn, R. S. (1984). Selected case studies of the learning style preferences of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28(3), 115-119.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 180 IQ Stanford-Binet; Origin and development*. Oxford, England: World Book.
- Kathleen M. (1994). A developmental view of a gifted child's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Roeper Review*, 17(2), 105-109.
- Moon, S. M., Kelly, K. R., & Feldhusen, J. F. (1997). Specialized counseling services for gifted youth and their families; A needs assessment. *Gifted Child Quarterly*, 41(1), 16-25.

= Abstract =

Review on Science and Invention-gifted Students Having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Eun-Joo Lyu

Daeje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Jung-Eun Kim

Sannam Elementary School

Seoung-Hey Pai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the solution for the difficulties of science and invention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with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that they are fac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has shown that the gifted students were feeling difficulties of low self-esteem in their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kills. They were feeling less confident in their stress processing capacity and their multi-processing capacity. Some were also troubled with the intense expectations from their environment and themselves which led them to feel confusion in their identities and their future. Therefore, instead of education focused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ognitive activity, present education for the gifted must focus on helping to solve the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and to strengthe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they need. To achieve this,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students should include a social-emotional learning program, and it should also run a continued and personalized consultation program for gifted students.

Key Words: Social-emotional trouble, Science gifted student, Invention gifted student, Self-worth

1차 원고접수: 2011년 7월 15일
수정 원고접수: 2011년 9월 18일
최종 게재결정: 2011년 9월 24일